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chool)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2-3학년 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11:00AM,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건성 장로 2부/김건수 장로 3부/김명수 장로 4부/홍승우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세례(유아)/입교식 Baptism & Confirmation All together 다같이
2부/ 세례, 입교식 3부/유아 세례식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4:6-9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10:1-27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기쁨으로 리셋(21) 살롬 샌드위치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겸손한 교만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겔세마네 동산에(찬510/새457장),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밥은 먹고 합시다!

Let's Eat First!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제일 아쉬워했던 것은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식당의 문이 열리면서 친구들이랑 식당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체증이 날아가듯 모든 우울한 것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식당 종업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손님들은 띄엄띄엄 앉아서 때론 주차장에 임시로 마련된 곳에 천막 치고 먹는 밥도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식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나르는 웨이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식당마다 손님들이 가득 모여 즐거운 대화의 꽃을 피우며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그 두렵고 험악했던 팬데믹 기간도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건강한 정서와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목사님, 밥 한번 같이 먹어요”라고 하시는 말이 친근히 느껴집니다. 심방은 목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 같은데, 식사를 함께하자는 요구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밥은 먹고 합시다” 일만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밥은 먹고 다니니?”라는 말에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 그 이상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끼니를 걱정하는 우리를 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하셨습니다. 우리와 소원해진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구약에 나오는 제사 중 화목제는 서먹해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공동체와의 친목과 화목을 위해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사는 대부분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화목제는 제물을 드린 자가 식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의 화목은 같이 식사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많이 존경하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멀리 이사 가시면서, 헤어짐의 아쉬운 표현으로 “한요에게 우리 집 김치 맛도 못 보여주고 가네...”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즘은 마켓에서 김치를 사서 먹는 시대가 되어서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우리 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김치 맛이 있었습니다. 그 김치 맛을 보았다는 것은 그 집과의 특별히 친한 교제의 관계를 말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가정의 그 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밥상에 초대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집의 김치 맛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김치 맛은 보셨나요? 우리 밥 먹고 합시다.

They say that one of the things people missed the most during pandemic was going out to restaurants to eat. As restaurants started to reopen, going to a restaurant with friends felt like decompressing and becoming freed from depression. Even though servers wore masks, with distanced seating, and at times converted parking lot seating, it was still effective. We don't see many waiters serving food with masks now. It feels like that fearful and treacherous pandemic season is almost over when seeing the images of restaurants filled with customers, flourishing in conversations and enjoying food.

Eating together may seem trivial, but it clearly plays an important role in people's physical and mental health. Personally, there's nothing friendlier than to hear someone ask, “Pastor, let's have lunch/dinner together”. Home visitations are pastor's responsibility, but being asked to go out to eat feels like a privilege. After a long day of work, one of the natural things to say is let's eat first. When a loving mother asks her son, “Are you eating well?”, it has more meaning than to simply fill his stomach. To us who are worried about food, God said “me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He wants us to eat together to resolve failed relationships.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that person, and they with me.” (Rev. 3:20)

Fellowship offering in Old Testament is an offering for reconciliation of our failed relationship with God, fellowship and reconciliation with community. Other offerings usually end with burning of sacrifice, but fellowship offering requires the person offering to participate in eating. Eating together represents reconciliation with God and with neighbors.

I am reminded of something a pastor, that I respected in my youth, said. As he was moving far away for his studies, he said to me regretfully, “Hanyo, I'm leaving without having you taste our kimchi...”. Perhaps, since kimchis are so readily available in markets now that this might not touch you. Back then each household had their own special kimchi recipes. Tasting their kimchi meant that there w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Those of you who are being baptized today have been invited to God's meal table. Do you know the kimchi taste of God's house? Has God tasted the kimchi at your house? Let's eat first.

주일설교시리즈 빌립보서 강해 -제21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

살롬 샌드위치
(빌 4:6-9)



1. 계획된 범죄와 우발적 범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적용하기



2. 오늘 말씀도 빌립보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3. 바울이 권하는 생각들은 무엇인지 나열해 보십시오.(참고/창 39:9)

- | | |
|----------|----------|
| 1) _____ | 2) _____ |
| 3) _____ | 4) _____ |
| 5) _____ | 6) _____ |

4. 크리스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서로 나누며 지혜를 배우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참고/신 6:7, 잠 7:3)

교육부 - Family Fall Fest

주님과 싱글 벙글

팬데믹으로 인해 Drive Thru로 했던 작년 Family Fall Fest의 아쉬움마저 다 잊게 하는 풍성한 '2021 Bethel Family Fall Festival'이었습니다. 시작 예배에서의 멋진 찬양, 아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동물 쇼(animal show)와 가족사진 부스(family photo booth), 풍선 쇼(bubble show), scavenger hunt 게임등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베델교회와 열심히 준비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헬러윈이라는 세속문화 속에서도 저희 가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이 느껴진 아주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Power Up With Jesus! Happy Holy win!

김균욱 집사

아이들 스스로 세상의 축제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게 된 Family Fall Fest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바이블 스토리를 듣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하면서 Family Fall Fest를 허락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연 집사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헬러윈은 귀여운 복장을 하고 온 동네를 돌며 바구니 한가득 받은 사탕을 먹는 단순히 "재미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델 Family Fall Fest는 재미를 넘어서, 깊이와 차원이 다른 감동적인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교회는 말씀, 찬양, 기도가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교회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기쁨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행사 주제처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유희도 "Power up with Jesus"라며 당당히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세심하게, 다양하게, 안전하게 축제를 준비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주희 성도

매년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Family Fall Fest! 올해는 특히 얼마나 많은 봉사자분의 수고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몸소 느끼게 되었고, 그만큼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김지현 집사

거의 2년간의 팬데믹으로 답답해하던 아이는 Family Fall Fest 며칠 전부터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행사는 2년 전보다 더 풍성해져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신 교회와 여러 봉사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원 집사

소망부의 큰 형님 릭키 형제가 반가운 얼굴로 카일을 반깁니다. 우스꽝스러운 '허수아비' 복장을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찬양에 맞추어 춤도 추고, 애니멀쇼 관람 후 호기심에 가득 차서 원숭이 친구와 재미난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싱글벙글합니다. 말로는 거의 표현을 못하는 자폐를 가졌지만, 많은 분의 섬김으로 준비해주신 Family Fall Fest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온 하루였습니다. 소망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니퍼 박 성도

"Power up with Jesus!"라는 힘찬 주제로 진행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이번 Family Fall Fest에 대한 저의 키워드는 감사, 재미, 의미였습니다. 유년부 동료 교사들과 함께 Festival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설렘과 기쁨을 맛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본당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드린 뜨거운 찬양과 예배는 정말 환희 그 자체였

습니다. 특히 엄마인 저를 꼭 안고 믿지 않는 언니 오빠를 위해 기도를 드리던 막내의 모습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와! 대~박!!" 원숭이 쇼와 각종 놀이기구는 정말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각 캐릭터를 찾아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말씀과 함께 자라나기



를 바라며, 벌써부터 내년 Family Fall Festival을 기대해봅니다.

이소영 성도(교사)

이번 Family Fall Fest는 미국 유학 생활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정말 감사하게도 페스티벌에서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게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았는데, 공을 던지며 노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웃음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모든 분이 각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

교육부 - Family Fall Fest

고사리손도 주님 것

하면서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이 시간만큼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두 하나 되어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도 이번 축제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베델 교회가 계획한 성대한 축제 덕분에 더 많은 아이와 어

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서게 된 날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Matt Han 성도(교사)

평상시에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자며 예수님을 전하면 반응이 시큰둥해서 친구들이 불쌍했습니다. 왜 친구들은 안 믿는 것일까? 지옥에 가는데... 그러던 중에 이번 Family Fall Fest에서 엄마가 gospel station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코너에 신청했다

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고, 게임도 즐기고 싶었는데 놀지도 못하고 외워야 할 내용이 많아서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John 선생님께서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우리가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혼자가 아니라 선생님과 친구들이 함께여서 용기도 나고 재밌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많은 아이 중의 한 명이라도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뿌려졌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이상 두렵거나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를 훈련해주시고 가르쳐주신 전도사님과 John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Yunny Hwang(6학년)



BCA - Family Fall Fest

교회 사랑,
학교 사랑

BCA 학부모회의 첫 행사였던 이번 Family Fall Fest 준비는 두근거림과 설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저녁상만 차려뒀던 제가 200 - 30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판매한다는 것에 몹시 긴장됐지만, 우리는 손과 발을 쓸 뿐 모두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매일 QT 나눔을 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번 행사가 우리 자신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임을 확인하며, 자신 없어지고 걱정이 앞설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는 말씀을 붙잡고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교회에서 주방봉사를 하였던 셀 목자님이 고된 봉사를 해 본 사람만이 봉사에서 오는 깊은 은혜와 기쁨의 맛을 알 수 있다고 하시

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제껏 교회나 다른 어디서도 봉사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셀 목자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고 봉사에서 오는 깊은 은혜와 기쁨의 맛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Family Fall Fest를 준비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시간 시간이 은혜로 가득 차고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가 하나 되는 이 귀한 공동체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곽소이 성도

8월부터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BCA)에 아이를 입학시키면서 기대가 컸습니다. 헌신적인 교장 선생님과 직원분들, 열정 넘치는 훌륭한 선

생님들, 한줄한줄 신앙적 관점에서 쓰인 교과서들, 논리와 설득력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 착하기 이를 데 없는 학우들까지 BCA는 저의 기대를 넘치도록 채워 주셨습니다. 다른 BCA 학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번 Family Fall Fest 준비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행사라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교회학교와 교육부가 힘을 모아 도와주시고, 경험 많으신 여러 권사님들께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수고해 주셔서, 행사를 잘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생들을 키운다는 BCA mission의 실현을 위해 '돕는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조수정 집사

평생 교육원-QTin 강좌(1)

QT의 의미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QT 하는 사람과 QT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QT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건강한 식사를 하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늘 정기적으로 먹는 것, 그것이 바로 QT입니다. QT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17)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을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 1:3)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매일 만나는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귀 Fellowship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나 형제라고 해도 이런 사귀이 없으면 서먹서먹해집니다. 아무리 오래 하나님을 믿었어도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사귀이 없다면 하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서먹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친근하게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매일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말씀 안에서 사귀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예배도 예배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동행하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 5:24)" 예수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기셨

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이유, 우리가 QT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요 목사

<QT를 위한 세 가지 황금률>

● 첫 번째, 하나님 중심 (God-Centered)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는 것이 중심입니다.

● 두 번째, 그리스도다움 (Christlikeness)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 세번째, 성령의 주도권(The Holy Spirit-leading)
말씀 속에서 삶을 이끄는 영적인 인도함을 느끼는 성령의 주도권, 이것이 바로 우리가 QT에서 기억해야 할 황금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미디어 리셋 캠프(1)

희망의 꽃대 향해 GO!!



그동안 아이들과 컴퓨터, 핸드폰 사용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미디어 리셋의 광고가 뜨자마자 바로 신청했습니다. 어른들도 힘든 미디어 절제와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으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다, 하기 싫다며 눈물을 흘리고, 저와 마찰이 생겼으나 본인이 약속한 것이기에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다 봅니다. 저와 대화하고 다짐한 후, 캠프의 과제부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캠프가 지난주

에 끝났지만 스스로 성경 구절을 계속 외우고, 식사 때 폰을 내려놓고 대화할 수 있는 토픽 스틱은 서로의 다른 생각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좋은 과제였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함께 영화를 보며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의 미디어 습관을 100% 못 바꾸지만, 앞으로 미디어를 대하는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깃발을 꽂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접할 때마다 캠프에서 배운 것들이 떠오르고, 생각날 것이라 믿습니다. 9:11 기도시간은 계속 지켜 나갈 겁니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가치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김명현 집사

저는 미디어 리셋 캠프에 참석하기 싫었습니다.

분명 그곳에서 미디어가 얼마나 나쁜지 말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캠프에서는 미디어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 암송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도전이 되기도 했고 차츰 쉬워졌습니다. 공과책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캠프가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어 밖의 즐거운 일들을 가르쳐 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Jason Chun(8학년)

미디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못된 사용은 나쁜 영향을 주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가야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 시간을 아껴 잘 쓰는 것의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미디어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주님이 준비해주신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Joanna Chun(6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세월위임/샬: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수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수채플: 서찬석 목사

예수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도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유년부: 이송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영어중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희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세례, 입교식 및 유아 세례식

지역광고

예수 새가족 환영회

● **세례, 입교식 (2부 예배 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례 예식에 임하는 세례자와 입교자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11명): Nayoko Tsuji, 강현수, 권미경, 김현정, 박예은, 박종구, 원예지, 유경현, 유준서, 이수인, 이승훈

입교자(18명): Amy Kong, Isaac Kwon, Faith Kim, Evelyn Kim, Siwoo Park, Joshua Y. Park, David Joram Bang, Jun Yu, Asenath Lee, Soeun Lee, Alexis Lee, Cailyn Lee, Peter Jang, Phillip Jang, Joshua Chung, Esther Chung, Jaeyoung Choi, Koen Choi

● **유아 세례식 (3부 예배 시)** 세례 받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자(7명):

강문구, 정하림 목사 가정의 강솔(Ezra Sol) Richard Koh, 하연하 성도 가정의 고주안(Elliott) 김영일, 원미정 성도 가정의 김이안(Ian) 박종구, 이정민 성도 가정의 박예진(Elise) 이장한, 김예지 성도 가정의 이도하(Christian Doha) 이태희, 이해원 성도 가정의 이재우(Noah) Jason Gromski, Anna Gromski 성도 가정의 Marigold

처음 경험해보는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매주 새가족들을 저희 예수 공동체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5시, 2-3학년 채플(구 식당)에서 팬데믹 이후 두 번째로 새가족 환영회를 개최합니다.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게임과 특별 연주, 맛있는 식사와 선물들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 모임 후 새가족분들은 예수의 정식 가족이 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저희가 드리는 작은 섬김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족과 같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마음 문들이 열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장소:** 11월 7일(주일) 저녁 5시, 2-3학년 채플
▶ **문의:** 김유미 전도사 (714)900-1253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월)	11/14:	①부-권순렬	②부-정광목	③부-김귀성	④부-하현정
	11/21:	①부-김교식	②부-김동수	③부-김근수	④부-나승호
	11/28:	①부-김도석	②부-김동진	③부-김동건	④부-송미진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11,12월)	11/13: 강영범	11/20: 김동균	11/27: 김유희	12/4: 김경수
강단꽃(11월)	11/7: 강하림, 김영신, 홍성아, 황준욱	11/14: 김교식, 김진환, 이주은	11/21: 김윤숙, 윤주원	11/28: 주정숙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김진영)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선교 작성 헌금(매월 첫째 주일) - 노란색 봉투로!** 오늘은 각 성도님께서 올해에 작성하신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 **포도헌금 - 연보라색 헌금 봉투로!** 다음 주일(14일)은 포도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포도헌금은 베델의 다음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헌금으로서 전 교인이 각 10불씩 헌금하시면 됩니다.

◆ **주일에배 및 토요 햄시바 전면 오픈** 토요 햄시바와 주일에배를 전면 오픈합니다. QR 코드 신청 없이 주일 예배와 햄시바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 착용 및 예배 후 방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 **예배 후 즉시 출차 / 주차증 발급 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 3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베델 캠퍼스는 주차증이 있으신 성도님들에 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며 비전주차장(새벽 5시 30분-오후 1시 30분까지 셔틀 운행)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올 말까지 2020년 주차증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새롭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차사무실로 오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 발급 대상: ①임신 8개월부터의 산모 ②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 ③80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분 ④건강상의 이유로 교회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분

◆ **세례/입교식 및 유아 세례식** 오늘은 세례, 입교식(2부)과 유아 세례식(3부)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례 예식에 임하는 세례자와 입교자들을 위해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면 참고)

◆ **특별기획 "베델인 더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베델 교인이라는 주제로 베델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나누며 은혜와 도전을 주는 특별 방송이 돌아오는 수요일(10일)에 방영됩니다.

◆ **목장별 추수감사축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에 베델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온 교우들에게 터키 만찬이 준비됩니다. 이번 주에 순서 추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장소: 11월 21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참가 목장: 믿음, 소망, 사랑, 은혜, 화평, 예수, JM (각 목장당 공연 시간은 4-5분)

순서: 1부-가족사진 촬영(코트야드), 2부-목장별 추수감사축제 및 선물추첨(본당),

3부-터키 만찬 및 선물추첨(코트야드)

*본당 앞 부스에서 함께 나눌 선물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도네이션 문의: 우성무 집사 (714)713-5888

◆ **베델 콰이어 & 베델 오케스트라 오리엔테이션** 새로운 지휘자와 첫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은 이번 주 금요일(12일)까지 신청을 카톡 채널 링크로 받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일시/장소: 11월 10일(수) 저녁 7시, 비전채플

문의: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예살 새가족 환영회** 예살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있습니다. 새로 온 예살의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문의: 11월 7일(주일) 저녁 5시, 2-3학년 채플, 김유미 전도사 (714)900-1253

◆ **예살 B&B DAY** 대학생 새가족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문의: 11월 14일(주일) 저녁 5시, 체육관, 김유미 전도사 (714)900-1253

◆ **카타콤 기도회** 시대를 함께 고민하며 교회와 나라, 개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카타콤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비전채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기도회 참석 방법: prayers.bkc.org로 들어오셔서 youtube로 참여 가능

◆ **BYM 중고등부 연합 겨울 수련회** BYM 자녀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12월 5일(주일)까지 받습니다.

등록: BYM 홈페이지 bethelunited.org/retreat

날짜/장소/대상: 12월 27일(월)-12월 29일(수), Irvine Ranch, 6-12학년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여옥제 목사 (818)270-5454

◆ **교회학교 감사일기 쓰기 "Count My Blessings Journal"**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K-5학년을 대상으로 감사일기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기간: K-3학년: 현재-11월 21일(주일)까지, 4-5학년: 현재-11월 28일(주일)까지

◆ **교회학교 교사 모집**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신실한 교사분들을 찾아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부서: 영아부, 유아부, K-1,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 **베델 한국학교 2022년 봄학기 등록안내** 베델 한국학교가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2022년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등록은 베델 한국학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베델한국학교 홈페이지 bks.bkc.org

등록 기간: 11월 8일(월)-11월 29일(월)

등록 대상: 5세 이상부터 중고등학생(2021년 9월 1일 기준)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목회자 동정** 예살 청년 목장에 공병주 전도사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살 사역을 위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축하해주세요**

임승범 성도/이옥선 집사의 아들 Peter Wlim 군과 서보람 양의 결혼식이 11월 7일(주일)에 있습니다.

베델 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혜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기쁨으로



리셋

Shalom Sandwich

(Philippians 4:6–9)

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calculated/intentional crime vs accidental crime?

Apply to Life



2. We are reminded that today's verses consist of exhortations for the saints at the church of Philippi. In other words, these are verses that one can obey after having experienced the power and grace of the Gospel. When we receive God's Word (sermon), are there things we able to understand and obey only by having personally experienced the grace of Gospel?

3. Please list the thoughts that Paul is recommending. (Ref: Gen 39:9)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4. As Christian parents how should we educate our children? Please share ideas and learn from each other, and pray together. (Ref: Deut 6:7, Prov 7:3)